

맑스-레닌주의, 모택동 사상, 등소평 이론을 넘어 강택민의 「3개 대표론」에 대한 연구

한양대학교 철학과 김태희

I. 서론	
II. 『3개 대표론』의 주요 내용	V. 『3개 대표론』에 대한 각 인사들의 강조 발언
1 선진사회 생산력 발전요구	1 리펑(李鵬)
2 선진문화 발전요구	2 후진타오(胡錦濤)
3 광대한 인민의 근본이익	3 정칭홍(曾慶紅)
III. 『3개 대표론』과 당 건설	4 윈지아바오(溫家寶)
1 맑스-레닌주의, 모택동, 등소평의 당건설 사상의 계승 발전	VI. 중국공산당 16차 전당대회
2 당의 건설 문제	1 강택민 주석 정치보고서 요약
3 3개 대표론과 당의 선진성	2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건설 위한 「10개항 기본방침」
IV. 『3개 대표론』과 사회 안정	VII. 결론
1 사회 안정의 전략적 의의와 실현	
2 개혁, 발전, 안정과의 관계	

I. 서론

중국공산당 11기 전국대표대회 3중 전회를 통해 등소평은 개혁·개방을 국가적 목표로 하고, 인민의 생산력 발전을 해방시켰다. 등소평은 “방안이 더워 창문을 열면(개방), 시원한 바람(경제성장)이 해충(개혁·개방에 따른 부작용)과 함께 들어온다”고 비유하며 개혁·개방 이후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문제점은 불가피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등소평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 경제 성장에 따른 부작용은 더욱 심각하게 되었다. 즉, 국유기업 개혁, 농민공⁸³⁾,

⁸³⁾ 농민공이란 농촌에서 취업하기 위해 도시로 이농한 농민들이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호적제도에 의해 거주 이전이 금지되어 정식으로 도시 주민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호적상으로는 농민이면서 도시에서 임시 거주하는 노동자이다.

실업(下崗)⁸⁴, 사회보장, 빈부격차, 부패청산,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 지역간 격차, 당정 분리 문제 등이다. 이러한 많은 문제들은 그의 후계자인 강택민 시대의 해결 과제가 되었다.

이에 2000년 2월 강택민은 「3개 대표론」을 제기하게 된다. 이후 중국공산당은 「3개 대표론」에 대한 지속적인 강화와 정책을 펴고 있다. 이러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발전을 위해 제시한 강택민 주석의 「3개 대표론」의 내용과 논리는 무엇이며, 중국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 과제와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중국공산당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또한 ‘공산당은 노동자·농민의 선봉대’라는 당헌 규정 하에 당원과 노동자, 농민들의 반발⁸⁵을 받으면서 까지 자본가 계층의 입당을 허용하고자 하는 배경은 무엇인가 접근하고자 한다.

II. 3개 대표론의 주요 내용

1) 선진사회 생산력 발전요구⁸⁶

「3개 대표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선진생산력 발전요구이다. 선진적인 생산력과 사회제도를 유지한다면 바로 ‘물질적 재산’과 ‘정신적 재산’을 훨씬 더 창조 할 수 있다. 그러하다면 국가는 전면적으로 나아갈 수 있고, 종합적인 국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당의 모든 노력은 결국 생산력의 해방과 발전을 위한 것이며, 당의 방침정책은 끊이지 않는 생산력 발전을 추진하는 것이다. 국가 경제의 발전력을 부단히 강화하는 것은 인민 생활수준을 부단히 향상시키며, 인민의 근본이익을 대표 할 수 있다.

⁸⁴) 1999년 강택민 신년사 연설 가운데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千方百計) 하강(下崗)노동자를 지원해야한다” 등의 상당히 강도 높은 표현으로 중국에서의 실업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月刊 아태지역동향》 『1999년 강택민 주석 신년사 분석』 한양대 아태지역학연구소(1999년 2월호, p42~44)

⁸⁵) 당내 진보파인 바우퉁은 공산당이 ‘부자·귀족·권력층을 위한 정당’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논문을 유포하고, 공산당을 ‘고목의 마른 가지 위에서 죽어가는 까마귀’로 비유하였다. 또한 공산당 보수파 인사들, 예비역 장성들 및 20여명의 혁명가 미망인들은 ‘우리는 새로운 중국 건설을 위한 혁명에 목숨을 바쳤는데, 江은 공산당의 방침을 바꾸고 자본주의자들의 입당을 용인하고 있다’ 며 강택민의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비난하였다. 《뉴스위크》 2002년 10월 23일

⁸⁶) 《人民日報》 『始終代表先進社會生產力的發展要求』 2000年 3月 5日

이러한 생산력을 발전시키려면 오래된 생산관계를 파괴하고 새로운 생산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실제적인 운용에 있어서 공업의 발전이 결국 무산계급이 선진생산력의 대표로 작용해서 역사 무대의 진보로 나아간다. 이것은 공산당원의 탄생과 사회주의 제도가 반드시 승리하는 근본적인 이유이다. 중국공산당의 탄생, 발전과 승리는 중국특색사회주의의 위대한 대사업이며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사회주의 사업의 역사적 경험을 **두 가지 방면**으로 영도하였다. 이에 선진생산력발전요구를 대표하고 번창하게 이르렀다. 선진생산력발전요구를 대표하지 못한다면 장차 인민대중이 역사적 진보를 이룩하는데 적극적인 주체로 나설 수 없게 된다. 낡은 생산관계를 바꾸지 않는다면 선진생산력 발전요구와 역사발전단계를 방해하며, 나아가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말 할 수 없다.

개혁·개방후 20여년 동안 모든 노력을 생산력을 해방하고 생산관계를 조정하는데 노력하였다. 개혁개방의 큰 성취는 이론상에 있어 현 단계의 사회주의는 초급단계의 사회주의⁸⁷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중국특색사회주의를 갖는 것은 이러한 기본근거를 바탕으로 당의 기본노선과, 강령, 방침정책을 제정하였다. 생산관계에 대해 조정을 진행하였고, 모든 제도관계, 분배방식, 경제체제 분야에서 모두 조정과 개혁을 진행하였다. 현재는 국가의 사회 생산력으로 극대한 발전을 이르게 되었으며, 온 세상 사람이 주목 할 정도의 성과를 얻게되었다.

선진생산력발전요구를 대표하는 것은 **경제 건설**을 중심으로 두는 것이며, 생산력발전예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모든 역량을 집중하지 않는다면 빠른 발전을 이룩할 수 없으며 선진성을 실현 할 수 없다. 당은 자본주의 조건 하에서의 다양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사회주의 조건하에서 선진발달국가로 완성해야 하며, 공업화와 경제의 사회화, 시장화, 현대화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선진생산력발전요구를 대표하는 것은 **과학 기술**의 창의성, 과학 인재의 배양, 과학의 발전을 중시해야한다. 과학 기술은 제일의 생산력이다.⁸⁸

강택민 주석의 생산력발전 중요 사상을 깊이 있게 파악하고, 국내외의 형세의 변화와 현재의 당면과제를 결합해야 한다. 나아가 인민대중에게 물질문화 생활의 새로운 요구를 보장

⁸⁷) 1982년 9월 1일 중국공산당 제12기 전국대표대회에서 행한 보고서에서 당시의 당주석 호요방(胡耀邦)은“우리의 사회주의 사회는 현재 아직 낮은 초기단계에 있으며 물질문명도 아직 발달하지 못했다”고 언급하였다.

⁸⁸) 1978년 등소평은“과학기술은 생산력이다”라 말하며 신중국 건설 내내 푸대접을 받아왔던 지식인들을 노동자의 반열 위에 올려놓고 생산력 발전을 위해 이들을 지지하고 고무해 왔다.

하고, 사상의 해방, 부단한 실천을 통해 결국에는 선진생산력발전요구를 대표해야한다. 그래야만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사업을 끊임없이 수행할 수 있다.

2) 선진문화 발전요구⁸⁹⁾

선진문화 발전요구는 **사회주의 정신문명건설을 강화**하는 지도 사상의 새로운 발전이다.

선진문화는 인류 문명의 진보적인 결정체이다. 또한 인류사회의 전진에 정신적인 동력과 지력(知力)기술의 총체이다. 인류의 정신과 마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모든 사회 생활의 각 방면으로 침투한다. 선진적인 정당은 선진생산력발전요구와 선진문화발전요구를 대표한다. 이러하다면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의 상호 보완적인 발전이 있으며, 사회의 전면적인 진보를 이끌어 낸다. 선진문화를 가지고 있고 전진적인 방향을 대표하는가의 여부가 당과 국가, 민족의 소질과 능력의 흥망성쇠를 결정한다.

선진문화는 당연히 건설적, 과학적, 미래지향적이며, 선진적인 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해 미래의 발전을 대표한다. 그렇지 않고 소비적이거나 우매하고 어리석게 된다면 전진적인 사회 문화는 형성되기 어렵다. 선진문화는 **사상도덕문화**와 **과학기술문화** 두 가지 발전적 요소를 포함한다. 공산당원의 선진성은 선진적인 사상도덕문화와 과학기술문화를 가지고 있음을 말하며, 양자는 서로 나뉘어질 수 없는 관계이다.

사상도덕문화⁹⁰⁾는 모든 방면의 문화적 사회성격을 결정한다. 즉, 모든 문화의 발전을 통솔하고, 사회, 경제, 정치의 진보에 영향을 미친다. 잘못된 사상은 '점령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마르크스주의와 무산계급사상은 그렇지 않다. 그러나 비마르크스 사상과 비무산자계급의 사상뿐 아니라 심지어 마르크스 사상에 반대하는 사상 모두는 점령의 속성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사상문화 건설 중에 당은 반드시 마르크스 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견지해야 한다.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위대한 실천 과정 중에 애국주의, 집단주의, 사회주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인민이 중국특색사회주의의 공통적 이상과 정확한 세계관, 인생관, 가

⁸⁹⁾ 《人民日報》『始終代表先進文化的前進方向』 2000년 3월 7일

⁹⁰⁾ 1989년 3월 등소평은 우간다 대통령과의 담화에서 "지난 10년 동안 우리들의 최대 실적은 교육 방면, 즉 사상·정치사업이 약화되었고, 교육 발전이 불충분한데 있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 성장에 따른 정신적인 혼란, 도덕적 규범의 붕괴 문제가 나날이 심화되고 있음을 말한다. 《말》『'90년대의 뇌봉'공변삼과 중국사회주의 정신문명의 위기』 이남주 (1997년 1월호, p110~113)

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⁹¹ 동시에 선진성의 요구를 결합해서 사회생산력의 사상도덕을 해방하고 발전하는데 적극적으로 격려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에 이익이 되고, 민족의 결합, 사회 진보적인 사상도덕을 훨씬 확대시켜야 한다. 아름답고 훌륭한 생활 도덕을 함양하기 위해 전인민을 적극적으로 단결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선진문화의 발전방향을 대표하는 것은 반드시 과학기술지식을 학습하고 **과학기술문화**를 발전시켜야 한다. 과학기술문화는 사회문명의 기초적 요소이다. 과학기술문화의 축적이 없다면 과학과 사상도덕의 높은 봉우리를 등반 할 수 없다. 지금의 세계와 과학발전은 나날이 새로워진다. 사상문화 교류를 반드시 열심히 학습하여 세계적 조류에 참여해야 한다. 반드시 과학정신을 수립하고, 과학방식에 능숙하고, 과학기술지식을 학습하여 우매함과 봉건적인 미신을 제거해야 한다. 또한 전면적으로 과학문화의 소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러한 형세 하에서 만약 당이 신국면에 대한 긴박감, 사명감, 위기감이 부족하다면 결코 시대에 앞서 나갈 수 없다.

선진문화의 발전방향을 대표하는 것은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을 진일보 강화하는 것에 있다. 이는 바로 맑스-레닌주의, 모택동 사상과 등소평 이론을 지도이념으로 하는 중국특색 사회주의 문화의 발전방향이다. 만약 당이 인민의 이익을 가장 높이 견지하고,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을 강화하고, 인민대중의 지혜와 창조성을 끊임없이 응집하고, 우수한 문화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전 인류의 문명의 성과를 받아들인다면 개혁 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위대한 실천 중에 선진문화의 진전방향을 대표할 것이다. 끊임없이 중국특색사회주의 문화를 창조하고 추동하며 사회주의 정신문명을 훌륭한 우수성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3) 광대한 인민의 근본이익⁹²

선진생산력 발전요구를 대표하고, 선진문화 전진방향을 대표하고, 광대한 인민의 근본이익을 대표하는 것은 서로 친밀한 관계에 있다. 그 중 「3개 대표론」을 관통하는 것은 인민의 광대한 이익을 대표하는 것으로 인민대중의 물질적인 생활수준을 계속해서 향상시키고, 효과적으로 인민에 대한 복무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⁹¹) 공산주의적 인간형의 전형으로 선전되어 대중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었던 인물로는 공병단의 병사였던 뇌봉(雷峰), 지방현의 당 서기였던 초유록이 있었다. 또한 1995년 강택민 총서기의 지시에 따라 '공번삼 따라 배우기'가 선전되었는데 공번삼은 열악한 근무조건인 서장(西藏)지역에서 개인의 안일을 돌보지 않고 인민에게 헌신적으로 봉사한 인물이었다.

⁹²) 《人民日報》『始終代表廣大人民的根本利益』 2000年 3月 9日

첫째, 중국공산당의 탄생과 사명은 전심전력으로 인민에 대한 복무이다.

권력의 쟁취와 장악, 개혁·개방, 생산력 해방과 발전은 모두 인민을 위한 것이다. 이는 중국공산당의 생명과 힘이 나오는 원천이다. 당이 보유한 권력을 인민에 대한 복무를 위해 사용한다면 권모술수나 단체(集團), 소수집단의 이익을 위해 사용 할 수 없다. 만약 광대한 인민의 근본이익을 대표한다면 당은 곧 인민의 단결과 인민대중의 역량을 응집하여 어려움을 극복 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당의 모든 사업은 실패 할 수 있다.

둘째, 인민대중의 무한한 역량과 지혜를 응집하게 한다.

광대한 인민의 근본이익을 대표하는 것은 정확한 이론과 노선, 방침 전략, 선진적인 제도, 유효한 제도적 기구로 인민대중의 근본이익을 견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당의 모든 사업은 인민을 위한 것이며, 인민에 의존해야 하고, 인민의 근본이익을 대표해야 한다. 이것은 사회 제도적인 노선 방침과 정책의 필요성, 과학 규율과 객관 실재와 부합해야 한다. 과학이론과 객관 실재를 근거로 하지 않고, 시대의 발전 조류를 파악하지 않고, 당의 정책 이론 수준을 전면적인 능력으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당의 사업은 모두 실패하게 된다.

셋째, 선진 생산력 발전과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

광대한 인민의 근본이익을 대표하는 것은 반드시 훨씬 많은 물질적 재산과 정신적 재산을 창조해야 한다. 만약 부단한 생산력 발전을 추진한다면 사회주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전 인민의 이익을 실현하고 비로소 풍유한 물질적 기초를 이루게 된다. 결국 인민대중은 개혁 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위대한 사업에 왕성한 열정을 투입함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인민대중은 당의 역사 시기 노선의 방침 정책을 진행했던 전 부분의 공정에서 국가의 희망과 전망을 보았다. 당은 전심전력으로 인민복무를 위하기 때문에 언제나 당을 유지하고 견지해야 한다. 당은 하나의 강대하고 승리를 거두도록 만들고 발전시켜야 한다. 현재 당은 긴박한 임무에 직면하고 있다. 당의 건설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단단히 붙잡아야하고, 새로운 형세와 임무를 하나의 문제로 여겨야 한다. 정치, 경제, 문화, 당의 건설상에 있어 인민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 모든 요소들을 깊이 있게 파악하고 해결해야 한다. 인민의 이익을 잘 실현, 발전, 유지시키는 것은 당이 엄격히 통제하며 견지해야 한다. 또한 당 건설에 있어 생기와 패기로 활력을 부여하고, 일치단결이 되도록 강화해야 한다.

Ⅲ. 3개 대표론과 당 건설

1) 맑스-레닌주의, 모택동, 등소평의 당 건설 사상의 계승 발전⁹³

강택민 주석은 당 건설 80주년 기념대회에서 연설하기를 “3개 대표론의 요구는 당의 선진성을 대표하며, 결국 중국특색사회주의를 건설하는데 핵심적인 기본 요구로 맑스-레닌주의, 모택동 사상, 등소평 이론, 당의 공인계급의 선봉성을 견지하고, 전심전력으로 인민에 대한 복무와 일치한다. 동시에 맑스-레닌주의, 모택동, 등소평의 당 건설 사상을 계승한 발전적 이론이다.”

중국공산당은 20세기 초에 창설되어 인민을 반식민지와 반봉건적인 구중국에서 사회주의 신중국의 위대한 혁명으로 이끌었다. 또한 제11기 3중 대회⁹⁴ 이후 발달하지 못했던 사회주의 국가를 부유하고 강대한 민주문명의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의 새로운 위대한 혁명으로 이끌었다. 이러한 두 차례의 위대한 혁명 진행 과정에 마르크스주의와 중국 현실과의 상호 결합이라는 역사적 비약을 실현하였으며, 모택동 사상과 등소평 이론의 위대한 이론의 성과를 만들었다. 이와 동시에 두 차례의 당 건설을 이루었는데 하나는 **모택동의 ‘당 건설 사상’**이며, 다른 하나는 **등소평의 ‘당 건설 이론’**이다.

구중국의 반식민지와 반봉건적인 상황에서 당 건설의 직면한 상황은 서방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혁명적 시기에 창시된 19세기 마르크스주의 상황과 다르며, 러시아의 10월 혁명 상황과도 같지 않다. 어떻게 중국공산당은 광대한 무산계급 정당을 건설하였으며, 중국혁명이 승리하도록 이끌었겠는가? 이것은 마르크스주의 발전 역사 중에 새로운 과제이다. **모택동 주석**은 핵심적인 당의 1대 지도자로 맑스-레닌주의를 바탕으로, 당의 정치노선과 무장투쟁의 실천에 당의 건설적인 모순과 복잡한 문제를 창조적으로 해결하였다. 그리고 당 건설 사상을 형성하여 맑스-레닌주의의 당 건설 학설을 풍부하게 발전시켰다. 또한 농민이 대다수인 반식민 반봉건 국가에서 전인민의 일치단결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기율을 엄격하고 공정하게 하였으며, 용맹하게 싸움을 했던 공인계급(工人階級)의 선봉대를 영도하였다. 이것은 세계 정치역사상 보기 드문 ‘웅대한 공정’의 사건이었으며 중국공산당 창설 이후 또 다른 새로운 발전이었다.

⁹³) 《新華社》『三个代表是對毛澤東、鄧小平建黨思想的繼承發展』 2002年 4月 28日

⁹⁴) 1978년 11월 제11기 3중전회에서 등소평은 “사상해방, 실사구시, 일치단결로 미래를 보자”는 개혁·개방의 대원칙을 천명하면서, 한편으로는 “사회주의노선, 공산당지배, 맑스-레닌주의·모택동사상, 무산계급독재의 견지”라는 [4항 기본원칙]을 강조하였다. 이는 중국의 발전을 위해 과감한 경제 개혁과 개방을 추진하겠지만 체제를 위협할지 모르는 정치 개혁을 제한하겠다는 의미였다. 《신동아》 2001년 9월호 (포스트 장쩌민시대 4대 시나리오)

제 11기 3중대회 이후 중국공산당이 직면한 환경과 임무에 있어 큰 변화를 맞이했다. 국내적인 상황을 보자면 ‘계급투쟁의 중점’에서 ‘경제 건설과 개혁·개방’으로, ‘계획경제’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로의 심각한 변화에 적응해야 했다. 국제적인 환경은 급격하게 변하는 국제사회와 발달한 자본주의 경제에 직면했고,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두각 되었다. 또한 자본주의적 의식형태가 침투하였다. 당의 조직의 상황에 대해서는 새로운 변화가 발생하여 이전보다 교육과 관리면에서 훨씬 더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등소평 이론을 바탕으로 당의 우수한 전통과 작풍이 계승 발전되었고, 시대가 요구하는 공인계급의 선봉성을 적응할 수 있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큰 사건이며 매우 중요한 임무였다.

등소평 주석은 제2의 핵심적인 중앙영도자로 중국이 직면한 상황에 적합하게 마르크스주의를 창조적으로 운용하였고, “一个中心, 两个基本点”⁹⁵의 기본노선을 정립하고, 사회주의 개혁·개방과 현대화의 건설 하에서 당의 건설적인 기본문제를 해결하였다. 맑스-레닌의 당의 학설과 모택동 주석의 당의 건설 사상을 새로운 사상과 관점으로 계승하고 풍부히하여 당 건설에 있어 위대한 공적으로 창조하였다.

강택민 주석은 핵심적인 제3대 중앙 집단지도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공정을 추진하였다. 그는 등소평 이론을 중심으로 전심전력으로 인민에 대한 복무와 정치사상성, 조직상의 완전한 견고함으로 각종의 위험을 해결하며 항상 시대의 선두로 나아갔다. 또한 전국의 인민 건설을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마르크스 정당으로 영도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위대한 공정을 추진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그는 창조적인 탐색을 바탕으로 당 중앙을 영도하였다. 그의 「3개 대표론」은 새로운 시기의 당 건설의 근본적인 지도 사상으로 강화되었으며 당의 새로운 목표와 일치한다. 「3개 대표론」의 요구는 ‘새로운 위대한 공정’이라는 당의 건설을 실현할 뿐 아니라 당의 실천적인 목표를 검증한다. 또한 당의 성격과 임무와 지도, 당의 선진성과 혁명성을 치밀하고 상세하게 반영한다. 그리고 새로운 역사적 상황 하에서 마르크스의 당 건설 학설을 창조적으로 발전시켰으며, 맑스-레닌주의, 모택동 사상과 등소평 이론을 풍부하게 하였다. 이는 앞으로 당의 건설 이론과 실천 과정에서 놀랄만한 역사적인 장을 남길 것이다.

당은 맑스-레닌주의의 당 학설과 모택동의 당 건설사상, 등소평의 당 건설이론과 강택민 주석의 중요한 논의와의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즉, 계승하는 중에 새로운 창조가 이어지고, 견지함에서 발전이 계속 끊이지 않는다.

⁹⁵) 1992년 10월에 개최되었던 중국공산당 제14차 「全大會」에서 중국의 특색인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 하나의 중심(경제건설), 두 개의 기본점(개혁·개방과 4항 기본원칙)에 입각한 정책노선으로 중국사회의 새로운 지도이념으로 채택되었다.

2) 당의 건설 문제⁹⁶

‘당은 당의 문제를 어떻게 건설해야 하는가?’ 에 대한 물음에 3가지로 말 할 수 있다. 당은 중국공산당의 기본(立堂之本), 행정의 기초(執政之基), 역량의 근원(力量之源)이다. 당은 신세기에 직면해 있으며, 전면적으로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위대한 사업에 직면해 있다. 이는 「3개 대표론」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파악하며 강한 당 건설을 필요로 한다.

첫째, 3개 대표론은 중국공산당의 기본(立堂之本)을 대표한다.

당은 스스로 설립하여 중국 사회를 선두로 발전시킨 선진적인 정당이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공인계급의 선봉대이다’ 라는 당 규정에 따르면 이는 당의 역사적 사명과 위치, 작용은 언제나 당의 선진성과 관계하며 일치한다. 선진성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가장 근본적인 것은 중국의 선진사회 생산력의 발전력, 선진문화의 방향, 광대한 인민의 근본이익을 대표하는 것이다.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것은 국내외로 직면해 있는 복잡한 환경에서 냉정한 도전과 얻기 어려운 좋은 기회 하에서 인민을 중국 특색 사회주의 건설의 주역으로 영도하고, 인민이 여유있게 생활하는 소강(小康)사회건설과, 사회주의 현대화의 목표를 향하여 전진한다. 시대의 진보적인 조류와 추세, 사회 변동의 상황과 특징은 모두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문제에 대한 부단한 해결은 시대의 선두에 나아가도록 한다.

둘째, 3개 대표론은 행정의 기초(執政之基)를 대표한다.

20세기 상반기에 당과 인민은 장기적인 혁명투쟁을 경험하였다. 제국주의, 봉건주의, 관료적 자본주의(三座大山)의 통치와 투쟁하고, 신중국을 건설한 후 정권을 획득한 위치에 올랐다. 20세기 하반기에 당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집정당이 되었으며,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천하기 위해서 인민을 사회주의 건설과 개혁 개방으로 영도하였다. 따라서 당의 집정적인 위치는 인민과 역사적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다.

셋째, 3개 대표론은 역량의 근원(力量之源)을 대표한다.

당 건설 초기 불과 몇 십 명의 당원을 보유⁹⁷하였지만 부단한 발전을 통해 현재는 6,630만명의 당원을 보유한 거대한 당이다. 또한 사회주의 신중국을 건설하였으며, 일궁이백(一窮二白)⁹⁸의 상황 하에서 경제와 사회 발전에 있어 놀랄만한 성과를 획득하였다. 그리고 13억

⁹⁶⁾ 《新華社》『立堂之本，執政之基，力量之源』 2000年 5月 22日

⁹⁷⁾ 1921년 7월 23일 상하이 조계지에서 ‘중국공산당 제1차 전국대표대회’ 참석자는 전국의 50여명 당원을 대표한 12명이 전부였다.

⁹⁸⁾ ‘첫째로 빈궁하고, 둘째로 공백상태이다’ 궁(窮)은 중국의 농·공업이 낙후되었으며, 백(白)은

이나 되는 인민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였다.

「3개 대표론」은 당의 성질, 주된 이념, 근본적인 임무를 총괄하며, 마르크스주의의 당 건설의 새로운 발전이며, 새로운 상황에서의 각 급의 당 조직과 당원에게 필요한 요구이며, 당을 강화하고 개선하려는 당의 건설 강령에 부합하는 것이다.

3) 3개 대표론과 당의 선진성⁹⁹⁾

강택민 주석은 당 건립 80주년 기념식에서 “3개 대표론의 요구는 당의 선진성을 유지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핵심적인 기본요구를 견지하는 것이다.

첫째, 3개 대표론은 **당의 계급적 기초**의 선진성을 실현한다.

「3개 대표론」은 사회주의의 생산력 진보와 생산 방식의 변혁을 추동한다. 이는 어떠한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튼튼한 사회로 발전시킨다. 마르크스주의의 당 건설 학설에서 강조하기를 ‘공산당은 공인(工人)계급의 선봉대이며, 공인계급 가운데 선진적인 구성원이기에 반드시 공인계급과 광대한 인민대중의 근본적인 이익을 반영하고 대표한다.’ 이는 공인계급은 선진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대표적 역할을 하며, 인류 역사상 최고의 선진적인 혁명계급이기 때문이다. 공인계급의 역사적 사명과 이익은 사회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역사적 진전 과정을 거치며 착취와 계급관계, 계급간의 차별을 소멸시켜 결국에는 공동부유(共同富裕)를 실현시킨다. 이러한 이유로 공산당은 공인계급의 선봉이며 엄격한 조직의 규율성을 기본으로 한다. 사회생산력을 해방하고 발전시킴으로써 공인계급은 자기의 근본 임무를 다하며, 생산력발전 요구를 바탕으로 오래된 생산관계를 변혁하고 개척해야 한다. 결국에는 물질과 정신적인 생산이 고도로 발달하여 물질과 정신적 재부(財富)가 고도로 발달된 공산주의의 목표를 실현한다. 따라서 선진사회생산력의 발전요구를 대표하는 것은 당의 주된 주안점이며 목표이다.

둘째, 3개 대표론은 **당의 주된 사상인** 선진성을 실현한다.

당은 언제나 시대의 선두로 나아감을 표명하였다. 마르크스주의 지도 하에 문화건설을 견지하고, 사회주의의 전면을 발전시키는 정신동력이다. 선진문화는 선진적인 사상도덕과 과학문화 두 방면을 포함한다. 양자는 서로 보완되며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다. 사상도덕문화는 모든 문화의 성격과 방향을 결정하며 통솔에 이른다. 즉, 사회, 정치, 경제의 각 방면의

문화·과학 기술 수준이 낮은 것을 말한다. 이것은 1956년 4월 모택동 주석의 《論十大關係》라는 연설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선진 제국에 비해 훨씬 낙후된 것을 표현한 말이다.

⁹⁹⁾ 《新華社》『三个代表體現了党的先進性』 2002年 4月 26日

진보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당은 맑스-레닌주의, 모택동 사상과 등소평 이론을 지도 이념으로 한다. 이러한 기풍을 계승하는 통일적 과학체계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선진적 문화의 성과이다.

셋째, 3개 대표론은 당이 전심전력으로 **인민에 대한 복무**를 충분히 실현한다.

당은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을 건설한다. 광대한 인민의 근본이익을 대표하며 전심전력으로 인민에 대한 복무를 견지한다. 어떠한 일이든지 대중을 위해 복무하며, 대중에 의존하며, 물질과 정신 문명건설의 새로운 국면을 부단히 개척한다. 중국에 설사 다른 정당 집단이 있다 하더라도 중국공산당만큼 광대한 대중성과 인민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 할 것이다.

당의 지도 사상, 당의 기본 강령, 당의 목표, 당의 근본적인 이념, 당의 선진성의 귀결점은 모두 「3개 대표론」에 있다. 「3개 대표론」은 당을 중국공산당의 기본(立堂之本), 행정의 기초(執政之基), 역량의 근원(力量之源)으로 이끈다. 이는 인민이 당을 영원히 지지하고, 당이 영원히 지속 될 수 있는 중요한 원인이다. 당의 부단한 발전건설은 당의 건설 이념을 끊임없이 풍부하게 하며 이는 당의 「3개 대표론」의 선진성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다.

IV. 3개 대표론과 사회 안정¹⁰⁰

강택민 주석은 「5·31」 발언 중에서 “대국면, 단결, 안정”¹⁰¹을 주되게 발언하였다. 또한 “중국공산당원은 이러한 정신을 열심히 학습하고 파악해야 하며, 「3개 대표론」으로 사회를 안정적으로 지도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 사회 안정의 전략적 의의와 실현

사회안정은 인민이 편히 살면서 즐겁게 일하고, 인민대중이 생활의 행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단 행복한 생활은 사회안정의 범위를 떠날 수 없다. 만약 사회가 동요되어 불안하고, 질서가 혼란하고, 경제가 발전하지 않는다면 인민대중은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등소평은 “안정은 모든 것보다 우선한다”¹⁰²라 하였다. 안정적인 단결을 기본으로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진행하는 것은 전 인민의 이익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강택민 주석

¹⁰⁰) 《人民日報》『三个代表与 社會穩定』 2002년 10월 22일

¹⁰¹) 講大局, 講團結, 講穩定

¹⁰²) 穩定壓倒一切

은 “안정을 생각하고, 발전을 기대하고, 부유를 희망하는 것은 모든 민족과 세계 인민의 공통적인 바램이다.¹⁰³⁾ 따라서 당은 「3개 대표론」의 실천으로 광대한 인민의 근본적 이익을 대표하고, 사회 안정을 유지하는데 전념해야 한다”고 하였다.

첫째, 선진생산력발전은 사회와 국가의 안전에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한다.

사회주의의 근본적 요구이자 임무인 선진생산력 발전을 추진하는 것은 사회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풍부한 물질적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다. 만약 풍요로운 생산력 발전을 추진한다면 사회주의제도의 우수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고, 사회주의제도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 당은 새로운 역사적 상황에서 생산력발전의 경향과 인민의 근본적인 요구를 세밀하게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개혁개방을 견지하며 부단히 선진생산력 발전을 추진해야 하고, 인민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의 어려움과 모순을 해결하고 풍족한 물질적 기초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선진문화건설은 사회의 안정을 실현하는 주된 요인이다.

사회안정을 위해 사상의 보장, 사회 규범과 지력기술이 필요하다. 선진문화의 전진 방향을 대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선진문화를 건설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며, 사회주의의 사상도덕 건설을 강화하는 것이다. 마르크스주의의 과학이론을 바탕으로 간부대오는 「3개 대표론」으로 무장해야 한다. 또한 과학적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으로 인민을 영도해야 한다. 이것은 장차 당과 전 인민이 마음을 하나로 응집하여 통일적인 이상을 형성하는데 이바지한다.

셋째, 광대한 인민의 근본이익을 대표하는 것은 당이 사회안정의 목표를 유지하는 것이다.

인민이 분투해서 획득한 것 모두는 인민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다. 인민의 이익은 생산력의 원동력과 관련되며 각종 사회활동과 사회관계의 원동력이다. 사회의 충돌, 동란, 불안정한 현상은 모두 인민의 이익에 손해를 가져다 준다. 그래서 당이 전심전력으로 인민의 복무를 주된 주안점으로 견지하는 것은 인민의 이익을 모든 사업의 출발점으로 하는 것이다. 당이 인민대중의 이익을 위해 도모하고, 사회의 부단한 발전을 추진할 때 비로소 인민대중의 이해, 지지, 신임을 얻어 당은 사회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

2) 개혁, 발전, 안정과의 관계

「3개 대표론」을 바탕으로 사회의 개혁(改革), 발전(發展), 안정(穩定)의 관계를 잘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 3가지 관계는 서로 의존하며 발전한다. 개혁(改革)은 경제와 사회 발전의

¹⁰³⁾ 思穩定，盼發展，求富裕，是各族各界群眾的共同心原

원동력이며, 생산력을 한 단계 더 해방하고 발전시킨다. 발전(發展)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과 대책이며, 안정(穩定)은 개혁과 발전의 기본 전제로 반드시 안정적인 정치와 사회 환경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V. 3개 대표론에 대한 각 인사들의 강조 발언

1) 리펑(李鵬)¹⁰⁴

- 강택민 주석의 공산당 80주년 기념식 연설에 대한 강조¹⁰⁵ 中에서

강택민 주석의 발언은 신세기의 전면적인 중국특색 사회주의 건설 사업이다. 전면적으로 당의 건설을 마르크스주의의 강령과 함께 새롭게 추진한다. 「3개 대표론」의 정신을 지도이념으로 깊이 학습하고 파악한 후 당의 사업을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강택민 주석의 연설은 마르크스주의, 모택동 사상, 등소평 이론을 지도이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고, 중국공산당의 80주년의 빛나는 역사적 과정과 경험을 회고하게 하였다. 또한 「3개 대표론」의 과학성과 신세기의 당의 역사적 임무와 목표를 분명히 밝히었다. 이는 새로운 역사적 조건 하에서 당 건설의 중대한 문제 해결을 강화시켰으며 개진하였다. 또한 사상의 해방과 실사구시 노선을 관철하고, 변증법적 유물주의와 역사유물주의를 논의하였다. 이것은 맑스-레닌주의, 모택동 사상, 등소평 이론의 새로운 발전이다.

모택동 주석은 마르크스주의의 보편적 진리와 중국혁명의 구체적 실제(中國革命具體實際)와의 상호 결합을 시도하였으며, 중국인민을 신민주주의 혁명¹⁰⁶의 승리로 영도하였다.

등소평 주석은 마르크스주의의 보편진리와 중국의 구체적인 실제(中國具體實際)를 상호 결합하였다. 모택동 사상을 창조적으로 풍부히 발전시켰으며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이론을 제기하였다. 즉, ‘무엇이 사회주의이며, 어떻게 사회주의를 건설해야 하는가?’ 에 대한 해결이었다.

¹⁰⁴⁾ 2001년 7월 당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전국인민대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¹⁰⁵⁾ 《人民日報》『李鵬: 以三个代表重要思想爲指導把人民工作提高到一个新水平』 2001年 7月 4日

¹⁰⁶⁾ 모택동 주석은 1940년 10월 그의 논문 《신민주주의론》에서 ‘중국공산당이 지향하는 혁명 목표는 중국의 반식민지·반봉건 상태를 타파하고 새로운 정치, 경제, 문화를 건설하는데 있다. 비록 현재의 혁명 성격이 부르주아적인 것이긴 하지만 장차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혁명으로 발전 가능성까지 내포하는 새로운 형태의 민주혁명이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강택민 주석은 「3개 대표론」을 제시하면서 새로운 역사적 상황 하에서 중국공산당은 ‘어떠한 형태의 당을 건설하고, 어떻게 당을 건설하는가?’를 제기하였다. 마르크스주의의 당 건설의 학설을 바탕으로 매우 과학적이며 체계적인 이론성, 실천성, 선명성의 시대적인 특성을 제시하였다. 「3개 대표론」을 지도 이념으로 실천한다면 전인민을 능히 승리로 영도 할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만약 당이 선진생산력 발전요구, 선진문화의 전진 방향, 광대한 인민의 근본이익을 대표하지 않는다면 당은 설 위치조차 없게 된다. 급변하는 국제적 상황과 추세에 관계없이 중국공산당은 마르크스주의, 모택동 사상, 등소평 이론의 근본적 사상을 계속 창조적으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의 노선을 견지해야 한다. 또한 자신감을 갖고 중국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여, 부강하고 민주적인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

2) 후진타오(胡錦濤)¹⁰⁷

- 강택민 주석의 중앙당교(黨校)에서 한 연설에 대한 강조¹⁰⁸ 中에서

강택민 주석이 제기했던 「5·31」¹⁰⁹발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3개 대표론」의 중요한 사상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다. 「3개 대표론」은 마르크스주의 사상의 기본원리를 견지하고, 유물주의와 역사적 유물론의 세계관과 방법론을 견지하는 것이며, 동시에 맑스-레닌주의, 모택동 사상과 등소평 이론을 계승하는 것이다. 또한 현재의 세계적 상황과 중국의 발전 변화를 반영한다. 이는 새로운 사상과 관점으로 맑스-레닌주의, 모택동 사상, 등소평 이론을 풍부하게 논의하며 발전시켰다. 당 이론은 새로운 성과들을 창조하였으며, 신세기의 당의 건설을 보장하고 개진한다. 부단히 「3개 대표론」을 깊이 학습한 후 성실하게 실천해야 한다.

현재의 세계와 중국과 당의 상황은 이미 중대한 변화들이 발생하고 있다. 당은 부단한 변화의 상황 하에서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며 발전하고, 새로운 임무를 완성해야 한다. 또한 당과 국가의 사업을 마르크스 이론을 바탕으로 새롭게 추진해야 한다. 마르크스 이론의 기본원리를 어떠한 시기에도 견지하지 않는다면 당의 사업은 이루어 질 수 없다. 정확한 이론의 기초와 사상의 정신이 없기 때문에 실패하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주의를 견지하며 시대의

¹⁰⁷) 2002년 9월 당시 중앙정치국 상임위원회 위원, 중앙서기처 서기, 중앙당교 교장

¹⁰⁸) 《新華社》『胡錦濤：貫穿三個代表思想 以優異成績迎十六大』 2002年 9月 2日

¹⁰⁹) 2002년 5월 31일 「3개 대표론」을 강조한 강택민 주석의 중앙당교 연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였으며, 「3개 대표론」을 현대 한어(漢語)사전에 신조어로 수록하였고, 「3개 대표론」의 실천을 보고하는 연극이 공연되었다.

변화와 객관 세계와의 결합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러한 실천 가운데 마르크스주의 사상을 발전시키고, 나아가 새로운 실천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해야한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국면을 새롭게 개척하는데 있어 반드시 당의 영도성을 견지하고, 개선하는데 있어 동요되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3개 대표론」의 요구를 바탕으로 개혁 정신을 발휘하여 새로운 위대한 공정으로 전면적으로 당의 건설을 해야한다. 신세기와 새로운 상황에서 당의 건설은 수많은 새로운 국면과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당의 건설 중에 장기적으로 축적된 성공적인 경험과 함께 운용해야 한다. 또한 동시에 실천 과정에 있어서 새로운 노선을 탐색해야 한다. 즉, 새로운 방법을 찾고, 신경험을 축적하고, 새로운 임무를 요청하는 새로운 형세에 적응해야 한다. 그리고 당내 민주화의 발전에 대한 연구를 투철하게 해야하며 당의 영도와 집정(執政)방식 문제를 개혁해야 한다. 간부의 육성과 인재의 선정 역시 개선해야한다. 또한 부패에 대한 예방과 처리¹¹⁰에 있어 투철해야 한다. 사상해방과 견지를 확고히 해야하며, 실사구시, 이론과 실천의 결합, 당의 건설에 있어 직면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탐구하고 해결해야 한다.

3) 정칭홍(曾慶紅)¹¹¹

- 전국 조직 부장 회의 발화문¹¹² 中에서

각 단위의 당위원회와 당원들은 「3개 대표론」을 지도 이념으로 해야하며, 강택민 주석의 「7·1」연설¹¹³의 중요 사항을 관철해야 한다. 또한 경제 건설을 중심으로 안정된 국면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영도 간부들과 기층 조직들을 강화해서 올바른 정신적 자세와 좋은 작풍을 위해 분투해야 한다.

신세기가 시작된 이래 인민이 여유있는 생활(小康)을 하는 사회로 전면적으로 건설하는데 직면해있다. 또한 사회주의 현대화의 새로운 발전단계를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국내외의 형세는 당의 건설에 새로운 변화와 상황을 부여하고 있다. 당은 새로운 형세하의 임무를 충분히 파악해서 직면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대안들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사상 통일을

¹¹⁰) 부패의 만연성은 중국 공산당의 통치 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로 이어진다. 따라서 反부패 투쟁에 중국 공산당의 운명이 걸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뉴스위크》 2000년 10월 10일

¹¹¹) 2001년 12월 당시 중앙정치국 후보위원, 중앙서기처 서기, 중앙조직부 부장

¹¹²) 《新華社》 『曾慶紅: 明年領導班子建設的任務非常繁重』 2001年 12月 28日

¹¹³) 중국공산당 창당 80주년 기념식에서 강택민 주석은 ‘당이 직면한 역사적 과제’ 를 언급하면서 ‘경제발전과 현대화’ 를 중요시하였다.

바탕으로 국내외의 복잡한 형세의 분석과 판단을 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중대한 정책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결국엔 당 조직의 일을 국제적인 배경과 전국면의 상황에 따라 적합하게 배치해야 한다.

간부들에게는 4화(四化)방침¹¹⁴과 덕과 재능을 겸비하도록 해야 한다. 정치사상적 측면을 우선시하도록 하며 인재와 우수한 간부를 선발해야 한다. 즉 정치사상적 자질이 우수하고, 과학 문화적 수준이 높고, 조직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뛰어나고, 대중이 인정하는 간부들을 선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조직은 정치사상의식을 강화해야 하며, 대국적 의식과 책임의식, 사상해방과 통일적 견지, 새로운 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이론을 창조해야 한다. 또한 시대정신에 맞추어 날이 갈수록 변창하고 전진¹¹⁵하며 조직의 일을 부단히 개진하도록 해야한다.

4) 원지아바오(溫家宝)¹¹⁶

- 전국 농촌의 '3개 대표론' 중요 사상 학습의 교육활동 성과 표창식¹¹⁷ 연설 내용 中에서 「3개 대표론」은 농촌의 곳곳에서 실현되어야 하며, 농업간부는 선진교육을 받아 농민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을 주도록 해야한다. 지금의 농업과 농촌의 현실¹¹⁸은 「3개 대표론」의 요구 를 바탕으로 농촌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농촌간부들을 교육하고, 덕과 재능을 겸비한 많은 간부를 육성하는 것은 농촌의 발전에 있어 장기적인 전략적 임무이다. 「3개 대표론」을 통해 간부를 학습시키고, 각오를 향상시켜야 한다. 또한 농촌 각 방면에 법제화, 일상화, 교육간부 양성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농민의 장기적인 이익은 농촌을 전면적으로 먹고 살만 한 수준의 사회의 달성에 이른다. 따라서

¹¹⁴) 등소평은 중국정치 특징인 노인정치(gerontocracy)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연령화, 지식화, 혁명화, 전문화인 4화(四化)를 추진하였다.

¹¹⁵) 여시구진(與時俱進) 즉, 당의 이론과 업무가 시대성을 나타내고, 규율성을 장악하고, 풍부한 창조성을 갖는 것이다. 이를 유지해 나가느냐의 여부가 당과 국가의 장래 운명을 결정한다고 보고 있다.

¹¹⁶) 2002년 6월 당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국무원 부총리

¹¹⁷) 《新華社》『將三个代表貫穿在農村工作中』 2002年 6月 25日

¹¹⁸) 공산당은 농촌의 위기가 도시로 확대될 가능성을 가장 우려한다. 중국의 농민 수는 현재 9억명이 넘으며 해마다 약 8백만명의 농민들이 도시로 유입된다. 《뉴스위크》『도시로 떠나는 농민의 발길을 붙잡아라』 Li Chang Ping, (2002년 10월 23일, p20)

각급의 농민 간부들은 언제나 전심전력으로 농민에 대한 복무를 위해 마음 깊이 새겨야 한다. 또한 농민대중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직책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농민을 위해 일을 잘 처리 할 뿐 아니라 부단한 농촌개혁의 심화로 당의 농촌정책을 실시하고, 농촌의 발전을 속히 추진 하며, 농촌사회의 전면적인 진보를 추진해야 한다.

확고한 학습교육의 활동성과는 반드시 당의 농촌의 기본정책을 실현시키는 것이다. 농촌 개혁과 개발, 당의 농촌의 기본정책은 정확한 지침이며, 농촌의 실재와 농민의 이익, 생산력 발전의 요구에 부합하고 반드시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농촌간부 스스로 당의 농촌 기본정책을 실시하며 농민대중을 농촌개혁에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도록 지도해야 한다.

당이 농촌의 일을 관리하는 것은 당의 역사적 전통이며 중요한 원칙이다. 각 급의 지도 간부는 농업문제를 전국적이며 고도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스스로 농업에 관심을 갖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 또한 농촌의 기층조직을 건설하는 것은 정신문명건설과 민주법제건설, 시행에 있어 부단히 견지해야 한다. 농촌발전은 「3개 대표론」의 학습 교육활동의 성과에 달려있으며 농촌의 새로운 상황에 창조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VI. 중국공산당 16차 전당대회

1) 강택민 주석 정치보고서 요약

강택민 주석은 16차 전당대회에 개막식 연설에서 총서기 재직기간인 13년과 제15기를 회고 하면서“개혁·개방이 풍성한 성과를 거뒀다”면서“인민생활이 총체적으로 여유있는 생활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그는“덩샤오핑 동지의 이론을 높이 들고 전진하는 동시에 미래의 시대적 변화에 부응해 성장해나가자”고 말했다. 우선 「3개 대표론」¹¹⁹을 관철하기 위해 개혁정신으로 당의 건설을 추진해나가고, 부단히 당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산당의 영도에 대해:“당은 시대정신과 함께 나가며 마르크스주의의 새 이론을 개척해야 한다. 그리고 집권당으로서 가장 중요한 임무는 중국을 부흥시키는 것이며 현대화 건설의 신국면을 추진하는 것이다. 특히 공산당이 3개 대표, 즉 선진생산력의 대표(민간 기업인), 선진

¹¹⁹⁾ 「3개 대표론」은 당장 총강 제2조에 수록된‘맑스-레닌주의, 모택동 사상, 등소평 이론’바로 다음 구절에 삽입된다. 또한‘우리나라는 사회주의 초기단계에 처해 있다’는 구절을‘우리나라는 먹고 살 만한 사회(小康)건설 단계에 진입했으며, 사회주의 현대화의 새 발전단계를 추진해야 한다’로 개정을 할 것이라 홍콩의 《星島日報》가 2002년 10월 28일 보도했다.

문화의 대표(지식인), 방대한 인민(노동자와 농민)이익의 대표가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자본가 계급의 입당 허용에 대해¹²⁰:“당 강령과 당헌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는 다른 사회계급을 받아들여야 한다. 따라서 생산 부문의 선두와 저명한 지식인, 그리고 젊은이들을 당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합법적인 노동수입과 비노동 수입은 모두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해 자본가에게도 공산당의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의지를 공식 천명하였다.

·반부패 문제에 대해:“부패 방지와 예방을 위해 단호하게 싸우는 것은 전체 당의 정치적 과제이며, 부패를 척결하지 못할 경우 당과 인민은 크나큰 고통을 겪을 것이며, 당은 집권당의 지위를 잃을 위기에 처할 것이다”라면서 강력한 반부패 전쟁을 선언했다.

·사회보장 문제에 대해:“가난한 인민을 도울 수 있는 실제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같은 사회보장 확충을 위해서는 높은 경제성장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성장 목표에 대해:“중국은 오는 2020년까지 2000년의 국내총생산(GDP)을 기준으로 4배의 경제규모를 달성하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중국인민들에게 ‘희망과 약속’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후진타오(胡錦濤)로 대표되는 4세대 지도부체제 하에서도 자신이 주도해온 개혁·개방정책이 지속되고 가속화할 것임을 선언했다.

2)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건설 위한 「10개항 기본방침」 中에서

- ▲등소평 이론을 지도사상으로 견지하고 부단히 이 이론의 창신에 노력한다.
-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견지하며 발전적인 방법으로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한다.
- ▲개혁개방 정신을 견지하며 사회주의시장경제 체제를 부단히 개선해 나간다.
- ▲4개 기본원칙¹²¹을 견지하며 사회주의 민주정치를 발전시킨다.
-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을 함께 추진하는 정신을 견지하며, 법과 덕을 바탕으로 다스린다.¹²²
- ▲사회안정이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방침 하에 개혁발전과 안정의 관계를 처리해나간다.
- ▲단결 정신을 견지해 역량을 단결시키고, 부단히 중화민족의 응집력을 증강시켜나간다.

¹²⁰) 자본가의 당 영입 허용은 거대한 사회 세력으로 성장한 자본가 계층이 공산당에 적대적으로 변질되기 전에 수렴하는 의도이기도 하다. 《한국일보》 『이념·시장 두 토끼잡기 24년, 도전받는 一堂체제』 문흥호(한양대 국제대학원 중국학과 교수) (2002년 10월 22일)

¹²¹) 중국공산당 11기 3중전회에서 중국공산당은 공식노선으로 4개 기본원칙(사회주의, 당 지도, 무산계급독재, 맑스-레닌주의·모택동 사상)을 견지할 것을 표명하였다.

¹²²) 依法治國, 依德治國

▲당 영도의 강화와 개선 방침을 견지해 당이 새롭고 위대한 공정을 건설해나간다.

VII. 결 론

중국공산당은 신중국의 건설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맑스-레닌주의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와의 결합, 당면한 현실과의 결합에 항상 주체적이며 창조적으로 대응하며 중국과 인민을 영도해왔다.

모택동 주석은 중국의 현실에 적합한 혁명모델을 건설하였으며, 덩소평 주석은“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며 개방·개방과 함께 생산력의 발전을 추진하였고, 강택민 주석은 현 중국이 직면한 상황에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건설 위한 「10개항 기본방침」과 이를 실현하는 사상적 토대로 「3개 대표론」을 제기하였다. 심지어 계급적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생산력 발전에 공헌하는 범위에서 자본가 계급의 당원을 허용하게 되었다.

이는 개혁·개방의 심화로 인민의 욕구가 기본적인 의식주(溫飽)문제 해결 단계에서 이제는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시장경제 발전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가느냐의 단계에 직면한 것이다. 또한 개혁·개방의 혜택을 적게 받는 소외된 지역의 인민이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해결해야 한다. 이는 앞으로 중국공산당이 지속적인 생산력발전과 함께 전인민의 공동부유(共同富裕)의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의 문제가 아닌가 한다.

하지만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발전을 위한 강택민 주석의 이러한 노력이 과연 결실을 맺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과연 21세기 중국공산당은 국내외의 급속한 변화에 맞추어 스스로를 잘 변화시키며 나아갈 수 있을까? 또한 「3개 대표론」에서 제기된 생산력의 발전, 선진문화의 요구, 광대한 인민의 요구를 사회안정 속에서 얼마나 실현시킬 수 있을까? 이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바통을 이어받은 후진타오(胡錦濤)로 대표되는 4세대 지도부체제의 몫이 아닐까 한다.

참 고 문 헌

- 《말》 『중국사회주의는 성공할 것인가』 권태선 (1992년 3월호, p138~143)
- 『전환시대 중국사회주의의 대변신』 조유식 (1993년 6월호, p86~100)
- 『죽은 덩소평이 21세기 중국을 이끈다』 이남주 (1995년 12월호, p90~95)
- 『강택민, 사상사업 강화로 후계구도 장악중』 이남주 (1996년 4월호, p180~186)
- 『‘90년대의 뇌봉’ 공변삼과 중국사회주의 정신문명의 위기』 이남주 (1997년 1월호,

p110~113)

『중국 인민들 가슴속의 덩샤오핑』 장영석 (1997년 4월호, p88~91)

『덩샤오핑 후계자 장쩌민의 신노선』 이남주 (1997년 4월호, p96~101)

『덩샤오핑 없는 중국, 어디로 갈 것인가』 이희옥(한신대 중국학과 교수), (1997년 4월호, p92~95)

『청년 신좌파, 다시 혁명의 길로』 박재우(한국외국어대 중국어과 교수), (2001년 2월호, p148~151)

《신동아》 『포스트 장쩌민시대 4대 시나리오』 박두복(대외안보연구원 교수), (2001년 9월호, p568~580)

《뉴스위크》 『현대판 황제 꿈꾸는 장쩌민 중국 주식』 Melinda Liu(베이징 지국장), (2000년 3월 5일, p48~49)

『중국의 부패 추방 열기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유상철 (2000년 10월 11일, p67)

『중국 4세대 지도부로 新 3인방 부상』 유상철 (2001년 9월 5일, p26~28)

『중국 정치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 것인가』 William Dobson(journalist), (2002년 10월 23일, p17~25)

《주간조선》 『중국, 4세대 지도자군(群) 뜬다』 지해범 (2000년 10월 5일, p86~87)

《한국일보》 『이념·시장 두 토끼잡기 24년. 도전받는 一堂체제』 문흥호(한양대 국제대학원 중국학과 교수) (2002년 10월 22일)

《新중국정치론》 김하룡, 장현표 공저 (나무와 숲, 2000)

《月刊 아태지역동향》 『1999년 강택민 주식 신년사 분석』 한양대 아태지역학연구소(1999년 2월호, p42~44)

『기층조직과 삼개대표』 한양대 아태지역학연구소 (2002년 7월호, p77~81)

《求是》 『用三个代表思想確定用人導向』 徐波 (2002年 第1期, p19~21)

『用三个代與精神文明建設』 吳愛英 (2002年 第6期, p46~49)

『在平凡的崗位上實踐三个代表』 石平 (2002年 第15期, p22~23)

『三个代表與可持續發展』 歐陽志遠 (2002年 第17期, p28~30)

『三个代表是指導我們的强大理論武器』 雒樹剛 (2002年 第20期, p15~17)

《新華社》 『立堂之本，執政之基，力量之源』 2000年 5月 22日
(<http://www.people.com.cn>)

『曾慶紅：明年領導班子建設的任務非常繁重』 2001年 12月 28日

『三个代表體現了党的先進性』 2002年 4月 26日

『三个代表是對毛澤東,鄧小平建黨思想的繼承發展』 2002年 4月 28日

『將三个代表貫穿在農村工作中』 2002年 6月 25日

『胡錦濤: 貫穿三个代表思想 以优异成績迎十六大』 2002年 9月 2日

《人民日報》『始終代表先進社會生產力的發展要求』 2000年 3月 5日

(<http://www.people.com.cn>)

『始終代表先進文化的前進方向』 2000年 3月 7日

『始終代表廣大人民的根本利益』 2000年 3月 9日

『李鵬: 以三个代表重要思想為指導把人民工作提高到一个新水平』 2001年 7月 4日

『三个代表与 社會穩定』 2002年 10月 22日

《論“三个代表”》 中央文獻出版社, 2001年